

小兒 精神에 대한 小考

具炳壽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

I. 緒論

고대 醫家들은 유모를 선택하는데 신중하여 萬全의 育嬰家秘에는 일찍이 영아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였는데¹⁾, 유모는 반드시 병이 없는 사람으로 해야 하고, 신체 건강하고 화평한 사람으로 택해야 한다고 하여, 첫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로는性情이 화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의 방법으로는 영아의 양호한 흡유습관도 길러 줘야하며, 시간과 量을 일정하게 하고, 생활을 질제 있게 해야하며, 젖을 먹일 때 유모는 미소를 띄우고 동시에 손으로 가볍게 만져주면 영아는 비로소 모유와 사랑에 배부를 것이라고 하여²⁾, 예로부터 소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영아에 대한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 다단한 생활환경과 물질주의로 인하여 점차 정신적인 황폐화로 인한 질병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사회는 급속히 핵가족 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서 자녀들과의 친밀감 및 信賴性이 점차 상실되는 반면, 어릴 때부터 다양하고 과중한 학습을 익히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경쟁적 분위기가 팽배하여짐에 따라 小兒들에게 있어서 심신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難治化의 경향을 띠고 있다.³⁾

한의학에서는 小兒의 一覽환에 대하여 각종후별로 소아특유의 정신적인 면을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신신경과적인 심리치료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으며, 단지 민간에서 이어져오는 穰法 혹은 양밥⁴⁾이라는 형태로 조금 전해져 오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小兒에 발생하는 정신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동서 의학적으로 재조명하여 小兒의 심리치료의 중요

3)李宗宇 金德坤 丁奎萬：小兒心身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大韓小兒科學會誌，vol 6 N.1，p. 55，1992

4)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한국민속대사전，서울，민족문화사，p. 996，1991.

객귀 물리는 방법의 하나.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 객귀가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래끼가 난 사람은 속눈썹을 뽑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돌을 놓고 눈썹을 올려놓은 다음 돌로 덮어놓는다. 그러면 지나던 사람의 발에 이들이 채이고 그 행인에게 눈 다래끼가 옮겨가서 났다고 믿는다.-- 객귀물림. 양귀법

1)陳夢雷 等編：醫部全錄(第十冊，兒科上)，北京，人民衛生出版社，p. 14，1963.

2)李浚川：情志醫學，中醫古籍出版社，p. 281，1992.

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 1) 한의학적으로 小兒에 심리적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환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小兒에 대한 穢法을 고찰하여, 서의학적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 3) 小兒 정신치료에 대한 동서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III. 本論

1. 한방신경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小兒에 대한 고찰

한의학에서는 小兒를 春令, 木德, 花之苞, 果之萼이라 표현을 하고,⁵⁾ 小兒科를 啞科⁶⁾라고도 하여 치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문헌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東武의 格致藁에서는 유아들이 重病을 앓고 있을 때에 세상 風俗되로 함부로 醫藥과 鍼灸를 사용하면 많은 죽음을 주게 되는 것이니, 重病에 비록 醫

藥을 쓰지 못할지라도 찬바람과 생냉물을 잘 調攝하여 주면 10명 中에 八-九名은 病이 쉽게 낫는 것이고, 만약 醫藥과 鍼灸를 함부로 쓰면, 10명 中 五-六名은 쉽게 죽게 되는 것으로, 급한 病에는 하는 수 없이 널리 의약으로서 쓰되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⁷⁾ 小兒生理를 보면, 元氣가 충실하지 못하고 肌肉이 幼弱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弱하여 容易하게 外邪의 침습을 받게 되고, 동시에 小兒의 체질은 純陽體質이며 陰氣가 不足하여, 가령 外感병에 걸리면 쉽게 발열하고 病邪가 心 혹은 肝에 들어가 傷陰되는바 이때 驚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또한 질병 경과 도중에 陽氣가 쉽게 衰渴되어 虛脫狀態에 빠지는 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러한 체질적 요소가 病의 進展을 쉽게 전변시키는 關鍵으로 된다고 하였다.⁸⁾ 小兒는 氣血이 충실하지 않은데 일생 동안의 盛衰의 기틀이 전부 幼年時代에 있으니 飲食도 조리해야 하지만 藥餌는 더욱 마땅히 삼가하여야 하다고 하였는데,⁹⁾ 이는 유년시대의 체질적인 중요성과 섭생과 약의 사용에 신중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한의학에서 소아의 정신과 의사라 할 수가 있는 明代의 醫家 萬全(十五至十六世紀, 字密齋)

5) 王新華: 中醫曆代醫論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 816, 1980.

小兒, 春令也, 木德也, 花之苞, 果之萼, 稚陰未充, 稚陰未長者也, 稚陽未充, 則肌膚疏薄, 易於感觸, 稚陰未長, 則臟腑柔嫩, 易於傳變, 易於傷陰, 故小兒病較大人尤重, 尤當以存陰爲第一義

6) 王新華: 中醫曆代醫論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 817, 1980. 小兒之病 古人謂之啞科以其言語不能通 病情不易測. 故曰 寧治十男子 莫治一婦人 寧治一婦人 莫治一小兒 此甚言小兒之難也.

7) 李濟馬著, 朴奭彥譯: 東武 格致藁, 서울, 태양사, p. 374, 1985

兒稚之中病者 時俗 妄用醫藥針灸 多致夭折 大凡重病 雖不用醫藥 慎攝風寒生冷則十病中 八九人 易生也 若亂用醫藥針灸則十病中 五六人易死也. 然急病 不可不廣問醫藥而 不可妄用

8) 한상모의 공저: 동의학 개론, 서울,麗江出版社, p. 666, 1991

9) 張介賓: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701, 1954 藥餌之誤 小兒氣血未克而一生盛衰之基全在幼時 此飲食之宜調而藥餌尤當慎也

은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라”, “공경하게 가르쳐라”, “성실히 가르치고, 괴롭히지 말라”라 하였고¹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 발음한 것을 가지고 놀리는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며, 그것은 어린 마음에 나쁜 씨를 심는 것이 되니 영아를 기르는 자는 이것을 잘 보살펴야 한다 하였다.¹¹⁾

古今醫統에서는 “어린아이가 60일이 되면 사람의 감정을 아니 이때부터 부모형제를 알고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였는데,¹²⁾ 이는 아이들이 커감에 차분함과 예의를 가르쳐야하며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王陽明의 訓蒙大意를 인용하여 “어린아이의 감정은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마치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이 곧게 뻗어 나가는데 그것을 만진다면 그 풀은 쇠약해지는데, 오늘 어린아에게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하면 진보만 있을 것이다 하여, 비로소 아동 교육에 묘책을 지적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잘되라고만 하여 아이의 학습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을 하니 이것은 아이의 학습성만을 죽이는 것이 될 뿐, 오히려 학습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 강요하는 것은 해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교육방법은 그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고, 언제 그 장기를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¹³⁾ 小兒의 정신적인 면

을 교육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다.

韓醫學의 小兒 전문서적에서는 주로 藥物과 鍼灸治療가 主種을 이루며 대표적으로 安神鎮痙의 治法이 사용되었지만, 兒科書籍에는 精神療法에 대한 구체적言及이 없었다고 하였지만¹⁴⁾, 明代의 小兒科의 韓醫師인인 萬全은 三有餘(心 肝 陽), 四不足(肺, 脾, 腎, 陰)의 學說을 주장하였고, 小兒心理活動을 일찍이 주장하였는데, 특히 “小兒相思”는 古代의 一種의 乳兒心理疾病으로 嬰幼兒의 環境, 親人, 玩具의 剝奪로 不食不乳, 表情淡漠, 昏睡不醒, 或導常哭啼, 睡臥不寧 등이 나타나고, 치료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고 하여,¹⁵⁾ 이미 유아의 心理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韓國 傳統社會에서는 나름의 社會 文化的 特性에 根據하여 아동의 成長 發達科程에 나타나는 心理의 不適應과, 心理의 原因에 基因한 身體的 不調和까지 바로잡는 다양한 양법 民俗을 창출 발전시켰는데, 이는 아동 養育과 교육을 책임진 成人에게는 心理的인 慰安을 주었고, 아동에게는 리듬 감각 유머와 위트 감각의 발달 및 思考, 情緒, 身體能力의 發達을 돕는 놀이와 教育인 동시에 治療 處方이었다고 하였다.¹⁶⁾ 양법민속은 說明的이고 論理的이라기 보다는 象徴的이고 非合理的이라는 觀點에서, 양법이 韓醫學 서적에 인용이 되지 않다고

10) 陳夢雷 等編：醫部全錄(第十冊，兒科上)，北京，人民衛生出版社，p. 28, 1963. 小我能言 必教之以正言 如鄙俚之言勿語也---言語問答 教以誠實 勿使欺妄也

11) 李浚川：情志醫學，中醫古籍出版社，p. 281, 1992.(再引用)

12) 陳夢雷 等編：醫部全錄(第十冊，兒科上)，北京，人民衛生出版社，p. 102, 1963 生後六十日後 瞳子成而能笑語識人

13) 李浚川：情志醫學，中醫古籍出版社，p. 282,

1992.(再引用)

14) 李宗宇 金德坤 丁奎萬，小兒心身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대한소아과학회지 vol 6, N 1, p. 62, 1992.

15) 王米渠：中醫心理治療，重慶，重慶出版社，p155, 1986.

16) 柳岸津：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서울，一志社，p. 1, 1985

생각하며, 경상도 지방에서 양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민간 처방인 것이지만 치료의 과정과 방법이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는 心理療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치료자인 血親과 피 치료자인 아동의 심리상태를 잘 활용하여 문제의 증세를 바로 잡아 나아가는 과정이며, 어머니나 할머니의 心理療法은 아동의 心性에 호소력이 클 수밖에 없고, 신비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건전하지 못한 정신상태를 치료 혹은 예방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적 예방적 교육 수단을 모두 동원한 精神衛生의 의의를 지닐 수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¹⁷⁾ 양방의 특징으로 첫째 치료자가 환자를 고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아동이 자기 스스로 異常狀態를 바로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아동이 지닌 이런 능력 때문에 아동 스스로 자기 생활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인이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아동을 위한 양방민속은 부적응 증세와 치료의 효과 면에서 夜尿症, 강박증세, 말더듬이 등 적응과 행동에서 이상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모든 증상을 위한 만병통치의 처방은 아니었다는 점으로, 올바른 아동양육과 교육의 방법을 바로 잡아 주는 방법으로서 다만 각 증상의 정도가 완화되기만 해도 아동의 知覺構造나 행동이 변화될 수 있고 전통사회의 생활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는 사회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하였으며, 셋째는 心理劇, 놀이요법, 消滅法, 嫌惡刺戟에 의한 統制法 및 催眠法의 기법 등이 이중 삼

중으로 복합된 특징이 버릇 교정, 잔병 치료, 세시풍속놀이와, 각종 심리예방법 있는데,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성인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주는 이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과, 歲時風俗놀이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成人心理는 물론 문화심리학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小兒의 心理狀態를 고찰하여 보면, 自己中心的 存在에서, 自己慾求를 나타내고 그것을 實現시키는 것이 急先務인데, 基本的慾求에는 生理的慾求와 愛情의慾求가 있고, 다음으로 容認에의慾求와 集團에의慾求 등이 發生하는데, 어린이의 心身發達을 고려하면서 가정적 사회적 적응을 指向하여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乳兒初期에서 小兒의 리듬(睡眠, 食事, 排尿管)과 가정의 리듬을 잘 조화시켜서 적합케 하는 노력으로, 출생후 1-2개월에 이 適合과 調和가 이루어지면 후의 모자관계는 원활해지며, 睡眠障害나 攝食異常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愛情의慾求는 신체접촉에서부터 시작하여 兩親과의 구체적 관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容認에의 욕구는 여러 가지 버릇들이기 속에서 실현되고, 集團에의 욕구는 놀이친구가 생김으로서 충족되는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物的慾求나 行動的慾求가 끊임없이 양친에게 提出되나, 이것은 기본적 욕구가 아니므로 그 統制能力 즉 욕구불만에 대한 忍耐力이 배양되지 않으면 제한 없이 膨脹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장난감이나 그림책 또는 과자 등에 대한 욕구라든가, 장난치고 닦치

17)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p. 9-10, 1985

18)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p. 26-27, 1985

는 데로 만지고 싶은 욕구 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족의 누군가가 적당히 制限을 가해야 하고,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制限하는 일이 적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본능적인 애정에 치우친 나머지 결국에는 어리광 덩어리로 만들어, 그 小兒로 하여금 自己中心的, 依存的 行동을 서슴없이 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¹⁹⁾ 특히 小兒들은 成人과는 달리 思考와 行動을 自己中心的으로 특이하게 하는 세 가지 사고방식을 提示하였는데, 첫째는 汎心論(animism)으로 자기이외의 것도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것으로서, 산이나 태양과 같은 무생물도 자기처럼 마음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實念論(realism)으로 自己意識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유아는 꿈과 현실 또는 공상과 현실을 混同하고 있으며, 셋째는 人工論(artificialism)으로 자기가 모래나 흙으로 산이나 과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太陽이나 달, 山川草木 등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²⁰⁾

2. 小兒에 心理的으로 인하여 誘發되는 疾患에 대한 考察

1) 疾病觀

病이라는 것은 인체를 두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출입이 자유 자재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것으로, 疾病의 인식은 韓國人의 疾病에 대한 豫防과 치료의 고유민속을 형성해 놓고 있는데, 病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病鬼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病이 들면 이 病鬼가 나가도록 작용을 부려야 하며, 除鬼退鬼의 민속을 분류 지으면 병귀에게 겁을 주거나 공갈치거나 병귀에 직접 가해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물리치는 積極的手法과 病鬼에게 供物을 바치거나 病鬼가 원하는 것을 주거나 하는 消極的手法으로 大別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¹⁾ 소극적인 방법 가운데 異色の인 것으로 음양패턴의 치료법을 들 수 있는데, 韓國人의 病觀은, 陰陽의 調和가 되지 않아 그 중 一元이 다른 一元에 비해 역센데서 비롯된 不調和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고, 이 약한 一元은 呪術的으로 補強시켜 강한 一元을 中和시킴으로서 병을 낮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²²⁾ 民間層에서 疾病의 원인이라 믿는 것은 신체에 의한 것보다는 신체 밖의 外的의 神秘力에 의한 것으로 믿는데, 원인으로서는 不潔, 神, 雜鬼, 기타 神秘力, 運數, 禁忌, 咀呪, 罪로 보았고²³⁾, 民間人의 疾病觀은 病原이 神이나 雜鬼, 運 등의 神秘力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신비력에 의해 질병을 豫防 치료하는데, 豫防은 個人과 共同으로 구분되면서 이 兩者는 다 같이 週期的인 예방과 隨時的인 예방 방법을

19)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62, 1985

20)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64, 1985

21) 이규태: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서울, 서울, 동아출판사, p. 180, 1992

22) 이규태: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서울, 서울, 동아출판사, p. 184, 1992

23) 金泰坤: 民間醫療의 實態와 原理-信仰治療를 中心으로-, 서울, 漢陽大學校 精神健康研究所, 第1 輯, p. 51, 1983.

사용하고, 週期的 豫防은 每年 歲時風俗의 一環으로 계속되는데 치료는方術, 비손, 讀經, 굿 등의 信仰力에 의존하며, 疾病의 치료 원리는 原本思考의 未分的 循環性에 의해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인간존재를 永久히 持續시키려는 存在의 原本原理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²⁴⁾ 病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의 문제이므로 병의 설정, 진단이나 치료는 본래 사회조직이나 문화배경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²⁵⁾

정상적인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心身의 不調를 극복하려는 모든 행동과 이 모든 행동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動機 및 이때 부수되는 특정한 감정 등을 규정하고 문화적 신앙체계 등등 모든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고, 전통적 의료행동이란 근대 의학에서처럼 생물 화학적인 영역에 한정될 수 없고 비 의료적이라는 분야에까지 넓게 설정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해석하였는데,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질병은 심신의 불균형 또는 不調하였으나 이런 질병이 심적인 것일 때는 거의 病魔라는 雜鬼의 소행으로 보았고, 때로는 신체적인 것까지도 그 원인을 雜鬼의 韃방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질병의 치료는 약물 사용과 귀신을 달래거나 위협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²⁶⁾ 전통사회의 치료의 예는 각종 양방과 같은 소규모적이거나 略式인 것이든 또는 공

개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엄격한 격식을 갖춘 것이든, 대체로 여성가족의 관심사였고 가족 중 조모나 모친과 같은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조모나 모친은 가족의 식생활을 담당하여 건강을 지키는 주부이기 때문이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가장과 그의 후계자가 될 장남이고 또 이들이 심신의 조화를 잃을 때 가장 먼저 주부에게 호소해 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⁷⁾ 바로 이런 현실적인 삶을 중시한 求福觀에서 다음에 논의될 각종 치료 및 예방적 의례 즉 양방민속이 創案되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양방민속은 복을 추구하고 順命하려는 전통사회인들의 지극히 자연스런 삶의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으로 보면 비록 치료나 예방적 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도, 당시 그들에겐 불안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처방으로서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²⁸⁾

2) 疾患別 考察

최근 小兒科 領域에 있어서는 成人 小兒科學(Adult pediatrics)이 제창되고 있고, 小兒부터 豫防 醫學的으로 장래 成人이 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두어서, 虛弱兒, 腺病質, 알레르기 체질, 自律神經失調症에 대해서 積極的인 體質改善療法이 缺乏돼 있다고 하였고²⁹⁾, 小兒心身症의 特徵에 대하여 發達段階에 應하여 다른 症狀으로 구별하여 보면, 心身症에 限定되지 않고, 其外의 小兒疾患은 全部

24) 金泰坤: 民間醫療의 實態와 原理-信仰治療를 中心으로-, 서울, 漢陽大學校 精神健康研究所, 第1 輯, p. 61, 1983.

25)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16, 1985

26)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17, 1985

27)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19, 1985

28)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21, 1985

29) 大塚恭男: 現代的 韓方治療(東西醫學의 結合) I, 서울, 翰成出版社, p. 132, 1989

發達段階에 依하여 病像이 달라지는 例가 많은데, 0-3歲까지는 胸腺, 副交感神經, 淋巴腺의 活動이 강하고, 副腎, 交感神經, 好中敎의 活動이 약하고 3-6歲間에 이 관계는 逆轉하여 버리고, 乳兒期의 浸出性體質 淋巴體質, 學童期의 精神炎體質은 각각의 發達期에 應한 標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쉬운 問題와 그 誘因을 나이 別로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³⁰⁾

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小兒 心身症 중에서, 양방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질환을 위주로 선별하여,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1) 夜尿症

夜尿症을 原因으로 분류하면 生理的, 精神的, 氣質的 夜尿症으로 분류하고 있는데,³¹⁾ 여기서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精神的인 夜尿症을 주로 다루고자 하며, 夜尿

| | 일어나기 쉬운 問題 | 誘因되기 쉬운 事項 |
|-------|--|--|
| 乳兒期 | 幽門痙攣, 下痢, 便秘, 全身의 發育障害 | 母親의 安달하는 感情 지나치게 빈틈없음, 育兒態度(授乳, 離乳, 排尿, 便秘 등의 訓練), 愛情의 缺乏, 放任 |
| 幼兒期 | 嘔吐, 下痢, 便秘, 腹痛, 食慾不振, 拒食 憤怒痙攣, 頻尿, 夜尿, 말더듬이, 氣管支喘息, 손가락 빨음, 性器만짐, 反抗 | 鬭爭心, 感情的 育兒態度, 兩親의 맞벌이, 愛情의 缺乏 |
| 學童期 | 頭痛, 嘔吐, 腹痛, 關節痛, 頻尿, 夜尿, 眩氣, 足痛, 氣管支喘息, Tic症, 말더듬, 손톱 빨기, 不安神經症, 強迫神經症, 登校拒否, 轉換히스테리一般症. | 親子關係(嚴한 禮意 凡節 가르침, 응석을 받아줌), 友人關係, 敎師와의 關係, 學業, 배우는 일. |
| 思春期以後 | 起立障害症, 氣管支喘息, 心臟神經症, 腸管運動失調症, 神經性食慾不振症, 말더듬, 自慰 登校拒否, 不安神經症, 強迫神經症, 轉換히스테리一般症, 非行, 自殺 | 個人의 能力(學力, 體格, 體力, 運動能力), 身體缺陷, 親子關係, 友人關係, 敎師와의 關係, 異性關係, 進學의 問題, 人生觀, 社會觀. |

自律神經系疾患으로는 特發性嘔吐症, 周期性嘔吐症, 反復性臍疝症, 自律神經發作症으로 起立性調節障癖, 不定愁愁訴를 포함한 소위 虛弱兒등이 있고, 小兒神經症으로는 夜啼症, 늦잠, 憤怒痙攣, 틱, 疝이, 心身症으로 夜尿症, 思春期心身症, 登校拒否初期症狀이 동양의학에 의한 치료로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小兒 질

症은 밤중의 배뇨훈련이 미완성되어서 습관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心理的 요인에 의해서 夜尿症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심리적 요인이 제거되었음에도 습관화된 排尿가 계속되고, 이것이 새로운 不安이나 不適應을 야기시켜 다른 심리적 요인이 되고 이 심리적 요인이 다시 夜尿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나타내

30) 廣瀬 滋之: 醫林, 서울, 醫林社, 第 166號, pp. 39-45, 1966

31) 丁奎萬編: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p. 583, 1992.

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직접 암시로서 “오늘밤부터는 오줌을 누지 않게 된다”, “밤에 자고 있을 때 오줌이 마려워지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누게 된다”³²⁾라고 할 수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夜尿症 뿐만이 아니라 夜驚症, tic, 우는 경련, 過呼吸症候群, 思春期 羸瘦症 등의 心身症적인 질병에는 당연히 心理療法까지 병용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³³⁾, 또한 遺尿症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는 과잉 보호적이며 아동이 소변을 계속적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은 그가 훈련반기에 너무 어리다거나 약하다는 구실이 어머니에 의해 제시되어, 아동은 유아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유아적 통제 결여 상태가 유지되는데, 훈련 기회 부족이 원인적 요인이 되는 경우는 아동이 농촌 가정이나 번잡한 도시지역에서 키워진 경우에 국한되며, 이런 곳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불충분하고 아동은 춥거나 복잡한 상태로 인해 화장실에 가게 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경우에는 유뇨증이 너무 성급하고 처벌적인 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아동이 소변으로 옷을 적시으로써 보복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생기게 되고, 유뇨증의 흔한 형태는 바로 退行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형태의 유뇨증이 있는 아동에서 소변으로 옷을 적시는 것은 모성접촉으로 인한 충족을 다시 얻으려는 수단으로, 아주 흔하게는 동생의 출생과 함께 어머니의 관심을 잃게 됨으로써 퇴행적 유뇨증이 일어난다고 하였다.³⁴⁾ 양밤에 나타난 夜尿症의 치료법으

로 “오줌싸개 동싸개 소문내 보자 얼라 걸라 부끄러워 오줌싸개야 오줌싸개 동싸개 소문났더라”하여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꾸어오라고 이르고, 이렇게 키를 쓰고 소금을 꾸러온 아동을 맞이한 집에서 그 집 주부가 소금을 꾸어주기는 커녕 부지깅이를 들고 나와서 키를 두드리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러한 조롱거리가 되는 충격을 경험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다음부터는 便意에 신경을 쓰도록 하려는 의도로 寸劇을 연출했던 것이며, 이런 충격을 경험한 아동이나 또 구경한 아동까지도 그 망신스러웠던 수치감을 생각하며 잠들기 전에 반드시 소변보는 일을 미리 챙기게 되고 또 잠자다가도 便意를 느낄 때 참으려고 하다가도 그 寸劇의 주인공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감을 생각해 내고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용변을 볼 수밖에 없으며,³⁵⁾ 키를 쓴 아동을 때리면 다치지 않아서 좋고, 음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소금을 꾸어주고 받는 듯한 소금이 부정타는 것을 막아 준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2) 아우타는 것

어머니가 아프거나 무슨 걱정이 있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형이 병이 나서 부모의 관심이 형에게 쏠렸을 때 나타나고,³⁶⁾ 이 시기의 박탈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³⁷⁾ 이러한 핵심은 갑자기

32)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49, 1985

33) 大塚恭男: 現代的 韓方治療(東西醫學의 結合) I, 서울, 翰成出版社, p. 133, 1989

34) 이근후의: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

사, p. 643, 1988

35)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p. 68-69, 1985

36)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104, 1989.

37)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어린이로부터 주위 특히 어머니의 관심이 없거나 줄어서 생기는 것으로, 獨子 중에 질투심이 강한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셈」이라고 표현하며 동생에 대한 질투심을 「아우셈」이라고 하는데, 질투심에서 주의할 점은 그 질투심이 나타나는 어린이의 행동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를 꼬집는다던가, 때린다든다 하는 행동은 그것이 질투에서 온 것임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응석부리기, 아기처럼 우는 것(退行에 屬함), 음식을 안 먹거나(拒食症), 吐(심신상관증), 옷을 안 입거나 함부로 장난감을 부수거나(慾求不滿), 밤에 오줌을 싸거나(주목 끌기), 때로는 낮에도 오줌을 지리거나 해서, 모두가 아기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동을 보이는 이 많다고 하였다.³⁸⁾ 小兒가 아우타는 병은 영아가 난 지 十個月 後에 어머니가 또 임신하면 어린이가 瘡疾과 痢疾처럼 앓으면서 배가 커져 때로는 발작하였다 멧었다 하는 것인데 百勞鳥 털을 띠워주거나, 붉은 비단 주머니에 夜明砂를 넣어 주머니에 채워주고, 박쥐를 태워서 가루를 내어 5푼을 죽이나 미음에 타서 하루에 4-5차 먹이고, 박쥐고기를 고소하게 구워 어린이에게 먹이라고 하였다.³⁹⁾⁴⁰⁾ 위의 여러 방법은 약리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심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우타는 것을 한의학적인 병명을 고찰한 바, 繼病과 魘病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病名으로 사료가 되고, 小兒의 魘病은 陰氣에 억눌려서 생기고, 魘病은 임신했을 때 鬼氣가 배속에 들어가 태아를 유혹했던 일이 있는 어린이에게 생긴다고 하였고, 임신한 부인에게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小兒에게 다 이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있으며, 魘病의 증상은 조금씩 자주 설사를 하며 추웠다 열이 났다 하고 머리털이 바스라지며 기분이 좋지 않고, 어린이가 나서 10달이 지났는데 또 임신해서 어린이의 기분이 명랑하지 못하고 힘이 없이 노곤해하며 몸이 여위는 것도 魘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治療하는 처방으로 冬瓜四兩, 切篇蓄四兩으로, 위의 약물을 물 3되에 달인 다음 따뜻하게 식혀서 어린이를 목욕시키면 낫는다고 하였는데,⁴¹⁾ 이는 피부의 접촉 통하여 小兒로 하여금 심적인 안정을 주고, 사랑을 받고있다는 확신을 주는 契機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

(3) 偏食 過食 小食

입맛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몸에 이상이 없는데 입맛이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⁴²⁾ 편식은 대부분이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는데, 가령

103, 1989.

38)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05, 1984

39) 이경화: 광제비급, 서울, 여강출판사, p. 293, 1992

40) 黃度淵: 醫宗損益, 서울, 麗江出版社, p. 352, 1993

4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향약집성방4, 평양, 일월서각, p. 275, 1993 小兒魘病 聖惠方 論曰 夫魘病者是陰制小兒所以有此魘病由婦人懷娠之時有惡神導其腹中胎嫉妬而制伏他小兒令病也 其妊婦不必悉能制魘故時人或有此爾魘之爲病喜微微下利往來寒熱毛髮莖聾不悅是其證也 聖惠方治小兒生十餘月後母又有娠令兒精神不爽身體痿痺名爲魘病

42)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84, 1989.

어머니가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자기에게는 등한하다고 느껴지면 무엇을 안 먹는다고 하고, 특히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머니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패배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³⁾ 小兒가 음식에 임의대로 편벽 되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없으니 소위 말하는 입에 시원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끝에는 병이 된다는 것인데 매우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⁴⁴⁾

(4) 虛弱

虛弱라는 말은 애매한 용어으로써 특히 의학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전문어가 아니며 병에 쉽게 걸리는 아이, 병을 앓고 난 어린이, 체력이 약한 어린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 이상체질을 가진 어린이, 신경질적인 어린이라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는데, 異常體質 속에는 滲出性체질, 胸腺淋巴體質, 알레르기 체질, 腺病質, 神經質이라고도 한다.⁴⁵⁾ 이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疳病이라 할 수가 있는데, 疳疾의 疳은 마르다는 乾字의 뜻과 같은 것으로, 二十歲 以下에는 疳이라 하고, 二十歲 以上에는 勞라 하였고, 기름진 것과 단 것을 많이 먹어서 대변 색이 희고 소변은 쌀뜨물과 같

으며, 입 안은 덤덤하고 코가 마르며, 입술은 희고, 양쪽 눈은 어둡거나 물커지고 머리카락이 부스러지며 드물며, 등은 올라가고 몸은 무거우며, 손톱을 물어뜯고 이를 갈며, 몹시 목말라하고 땀이 저절로 나며, 소변은 희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설사를 하며, 배가 몹시 부르고 끓으며, 시간 맞춰 열이 나고 옴같은 현대가 생기고 오이나 과실이나 신 것이나 짠 것이나 솟이나 생쌀이나 진흙을 몹시 먹으려 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라고 하였다.⁴⁶⁾

(5) 엄지 빨기

身體操作의 가장 초기 형태의 하나로서 이는 보통 유아에서의 빠는 동작의 剝奪의 결과이거나 나이든 아동에서의 긴장이나 무료할 때의 퇴행행동으로, 유아에서 엄지 빨기 행위의 대부분은 수유방식에 상관없이 빠는 단계의 입술운동의 缺乏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엄지 빨기는 유아의 섭식장애와 어머니의 불안 표현뿐만 아니라 잘못된 육아방식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였다.⁴⁷⁾ 현대의 육아 이론에서 살펴보면 손가락을 버릇으로 빨거나 손톱을 깨무는 아동은 욕구불만이 원인이 라고 진단이 되는데, 동생이 생기면 서둘러 離乳를 하게 되고, 가족의 관심과 애정이 동생에게로 옮겨지고 자신은 더 이상 사랑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

43)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75, 1989.

44) 張介賓: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698, 1954 小兒飲食有任意 偏好者無不致病 所謂爽口味多終作疾也 極慎之

45)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120, 1985

46) 李景華: 廣濟秘笈, 서울, 麗江出版社, p. 304, 1992 疳者乾也 十二歲以下疳 二十歲以上勞 多食肥大便秘色白 小便如泔口淡 鼻乾唇白兩目昏 爛毛髮焦稀背脊重關爪咬牙 焦渴自汗淚白鴻酸 肚大腸鳴潮熱瘡疥或酷嗜瓜果酸鹹炭米泥土飲水 多者是症也

47) 이근후의: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 641, 1988

고, 授乳期에 만족스런 수유를 받지 못한 나머지 口腔의 쾌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결과로 손가락 빨기 같은 버릇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원인이 복합되어서 또는 단일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고착된 손가락 빨기의 치료 방법으로는 손가락에 봉숭아물들이기, 땀감의 즐바르기, 익모초즙 발라 주기, 산초뿌리 목에 채워서 쥐여주기, 기타 먹을 것 쥐여 주기 등의 처방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⁴⁸⁾

(6) 손톱 물어뜯기

아동과 어른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신체 조작중 가장 흔한 것으로, 보통 5세 정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10내지 12세에서는 그 빈도가 증가하나 이때부터 아동들은 차차 그 버릇을 그만 두는데, 이 행동을 그만 두도록 아동을 위협하는 것은 보통 성공하지 못하며, 이 상태는 긴장의 표현으로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밑에 깔린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감소에 따라 제거되어질 수 있다.⁴⁹⁾

(7) 유아의 성기 만지는 것

2세경의 유아도 자기의 성기를 살피고 만지작거리는 일이 있는데, 부모들은 이것을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황하고 처벌을 가하는 수가 왕왕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유아가 자기의 신체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심할 때에만 주의를 요한다.⁵⁰⁾

(8) 惡夢 꾸는 버릇의 치료법

治療法으로는 작두나 도끼 식칼 또는 낫과 같은 무서운 기구를 아동의 잠자리 머리맡에 놓아두고, 아동으로 하여금 이들 도구를 눈으로 보게 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게 한 다음 다음과 같은 암시를 일러주는데, “이걸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자면 절대로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 무서운 꿈도 꾸지 않는다”⁵¹⁾라고 암시를 한다. 어린이의 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왜곡되지 않은 꿈은 어린이들의 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린이의 꿈은 짧고 선명하고 정연하여 알기 쉬운데다가 모호한 대가 없고 뚜렷하고, 만일 정신활동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나이에 4, 5세까지의 시기를 한정한다면, 유아성이라고 할 특성을 갖춘 많은 꿈을 발견할 것이며, 이후의 小兒시기에도 같은 종류의 꿈이 약간 발견될 것이라고 하였고,⁵²⁾ 꿈이라는 용어는 소망의 충족이 꿈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꿈속의 경험이 수면상태에서만 가능한 변형된 공상이라면, 꿈 형성의 과정이 밤중에 작용하는 자극을 제거하고 소망의 충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갈 것이라고 하였고,⁵³⁾ 어린이라도 중요한 인상만이 기억 속에 남고, 이 중요한 인상은 압축 작용, 특히 대치 작용으로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나타날 뿐이라고 하였다.⁵⁴⁾

社, p. 177, 1981

51)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71, 1985

52) 이명성: 정신분석 입문, 서울, 흥신문화사, p. 98, 1987

53) 이명성: 정신분석 입문, 서울, 흥신문화사, p. 102, 1987

54) 이명성: 정신분석 입문, 서울, 흥신문화사, p.

48)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80, 1985

49) 이근후외: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 641, 1988

50) 韓國應用心理學會, 정신위생, 서울, 教育科學

이러한 일부분의 拔萃로 전부를 代辯할 수는 없으나, 위의 고찰된 증후들은 서로 복합적이고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

3) 小兒 情緒에 대한 考察

小兒의 生理 特徵이 臟腑嬌嫩 形氣未充하기 때문에 神氣가 怯弱하여 易受驚恐한다고 記載되어 있고, 東洋醫學的인 小兒心身症은 이러한 小兒의 生理 特徵에 따라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하며,⁵⁵⁾ 小兒疾病의 發生 원인으로 東醫學에서는 驚恐으로 困한 것이 제일 많이 언급되었으며 七情中 喜 悲에 關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였다.⁵⁶⁾ 情緒(emotion)의 정의는 원래 라틴어로서 “ 휘젓는다, 동요시킨다, 흔들려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movere에서 由來되었는데, 흥분하고 뒤흔들려서 교란된 상태라든가 반응의 일시적인 혼란 상태, 또는 흥분된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심리학적 용어라 할 수 있고, 主觀에 대하여 外界에서 무엇인가가 작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지하는 지적활동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그 색이나 모양이라는 객관적 속성의 인지 이외에도 아기들에게 그 색이나 모양에 의해서 뒤흔들려진 상태, 즉 좋다든지 싫다든지 무섭다든지의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정 충동 신체적 생리

적 반응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⁵⁷⁾ 따라서 小兒의 情緒狀態를 理解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恐怖는 生後 6개월이 되면, 아기들은 무서워하는 정서가 나타난다. 이 恐怖의 情緒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면 Watson의 실험에 의하면 크고 강한 소리와 신체를 지탱해 주던지 지지가 사라질 때 공포심을 일으킨 다는 것이고 이들 공포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恐怖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이라고 했다. 영아에 있어서 生後 半年이면 무서워하는 情緒가 나타난다는 것은 情緒의 발달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사실로, 무서운 느낌을 갖게 되면 신체운동을 정지하는데, 눈물을 흘린다, 눈을 꼭 감는다, 슬픈 표정으로 운다,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영아에서의 恐怖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동물, 불빛, 어두운 방, 높은 장소, 처음 보는 사람, 이상한 차림을 한 사람, 이상하게 생긴 물건, 처음 보는 물건, 큰 소리 등이다. 영아가 가지는 恐怖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각 개인이 가지는 경험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출생직후에 나타나는 공포는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놀라움이지만 약 8개월쯤 되면 공포를 분명히 나타내는데 특히 낮가리기를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恐怖는 수많은 감정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즉 부끄러움 당혹감 걱정 불안 등을 유발시키므로 불필요한 恐怖경험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158, 1987

55) 李宗宇 金德坤 丁奎萬: 小兒心身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小兒科學會誌 vol. 6, N 1, p. 61, 1992

56) 李宗宇 金德坤 丁奎萬: 小兒心身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小兒科學會誌 vol. 6, N 1, p. 62, 1992

57)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p. 287-288, 1984

한다고 하였다.⁵⁸⁾ 무서움의 연령적 변화로는 嬰兒期에도 이미 무서움은 나타나고 있지만, 1세가 지난 아기들은 크고 돌연한 소리나 낯선 대상이나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무서워하고, 2세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무서움이 매우 강해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 특히 청각적인 것으로 기차 비행기 트럭 등의 소음, 천둥과 같은 큰 소리, 어떤 종류의 동물의 울음 소리나, 시각적인 것으로는 커다란 빌딩과 같은 것,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어둠을 무서워하게 되고, 三歲가 지나면 눈으로 보는 것, 즉 視覺的인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많아져, 피부의 색이 다른 인종이나 주름살이 많은 노인네들, 가면이나 캄캄한 곳, 동물과 같은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무서움을 탄다. 4세가 되면 청각적인 것에 대한 무서움이 강해지고 특히 화재 사이렌 소리를 무서워하며, 특히 엄마가 자기를 내버려두고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것이 밤이면 더욱 무서워한다. 五歲가 되면 차츰 무서움을 타는 것이 줄어, 동물 같은 것은 이제 별로 무서워하지 않게 되지만, 몸을 다친다거나 구른다거나 개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무서움을 타게 되고, 캄캄한 것은 역시 무서워하며 특히 밤에 번개가 일고 천둥이 치고 사이렌이 울리거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六歲부터 시작해서 六歲가 지날 때까지의 사이는, 무서움 타기가 강해진다고 하였다.⁵⁹⁾ 상상력이 발하기 때문에 유령, 도깨비, 귀신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무

서움의 대상이 변화하고 확산되어 가는 것에는 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가지로 사물을 알게 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암시의 영향을 들 수 있고, 셋째는 조건화, 넷째는 모방, 다섯째는 불행한 경험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⁶⁰⁾

(2) 忿怒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첫째는 화내기를 조장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들 수 있는데, 病中에 있거나 病에 걸리려고 할 때는 노하기 쉽고, 둘째는 신체의 조건으로 피로할 때, 수면부족일 때는 노하기 쉬우며, 식사시간 직전이나 저녁 무렵에 아이들은 노하기를 잘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일반적 감정상태로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하고 있을 때 불쾌한 일이 있는 뒤 무서운 일이 있는 뒤에 아이들은 노하기가 쉬운데, 영화관이나 극장에 데려가도 우는 아이나 오랫동안 엄마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에서 여기저기 끌려 다닌 아이들이 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네 번째는 활동이 불충분한 상태로 활동량이 적어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는 아이들은 노하기가 쉬우며, 다섯 번째는 주위 어린이들의 화내기에 대한 태도로 무엇이든 주위 어른이나 연장자에게서 눌러서만 자라난 아이들은 자기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노하기 쉬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반항적인 아이가 되기 쉽고, 여섯 번째는 모방이 영향을 준 경우로, 부모가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면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아이들은 노하기 쉬운 성격

58) 金幸子: 新橋兒童發達學, 서울, 修學社, p. 107, 1990

59)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299, 1984

60)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00, 1984

을 갖게 되기 쉽다고 하였다.⁶¹⁾⁶²⁾ 忿怒의 시작은 不快의 情緒는 이미 2-3개월이면 영아들에게 나타나지만 생후 5개월이면 뜻대로 안 되거나 언제까지나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숨이 차서 우는 분노의 정서가 나타나며, 아기는 눈을 뜬 채로 항의하듯이 우는 뚜렷한 분노의 정서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불쾌한 분노의 情緒가 분화되어짐을 알 수 있다. 싫어하는 것이 시작되는 나이는 생후 6개월 경이 되면 아기는 好, 不好, 특히 뚜렷한 嫌惡를 나타내고, 싫은 일이 생기면 기침을 하거나 싫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해서 싫은 것에 대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무서움의 시작은 생후 6개월이면 아기들은 무서워하는 情緒가 나타난다고 하였다.⁶³⁾

(3) 울음은 대체로 불쾌의 표현으로 일반적인 불쾌감, 무서울 때, 성이 났을 때는 울며, 그러나 우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보통으로 줄음이 올 때, 아플 때, 놀랐을 때,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운다. 그리고 우는 것은 이와 같은 불쾌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있게 해 달라는 요구의 소리가 되며, 유아기가 되면 그 울음은 한층 사회적 의미가 더해지고, 要求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⁶⁴⁾

61) 金幸子: 新橋兒童發達學, 서울, 修學社, p. 109, 1990

62)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02, 1984

63)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290, 1984

64)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p. 306-307, 1984

4. 小兒 保養法에 대한 考察

景岳全書에서는 小兒가 初生하면 肌膚가 實하지 않으니 마땅히 오래된 솜으로 背를 보호해 주는 데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안되고 거둬 자주 風과 태양을 보게 해주면 氣血이 剛強하고 肌肉이 치밀하게 된다. 만약 帷帳을 두껍게 친 밀실에 만 있게 하거나 또는 두꺼운 옷으로 너무 따뜻하게 하면 筋骨이 軟弱하게 되어 風寒을 감당할 수 없어서 흔히 쉽게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의복은 마땅히 寒熱을 따라서 加減하는데 단지 背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고 역시 表虛하면 風邪가 쉽게 상하게 할까 두려우니 땀이 나도록 하면 안되며 젖을 먹는 것도 역시 너무 배가 부르도록 주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3分은 寒을 참게하고 7分 정도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이고 자주 肚를 주물러 주고 적게 씻기며 肚는 따뜻하게 頭와 心胸은 涼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또한 乳母는 六淫, 七情과 厚味, 炙膊을 삼가하여 乳汁이 靑靈하도록 하면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陰陽이 偏勝하고 氣血이 沸騰하여 乳汁이 敗壞해서 반드시 諸病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⁶⁵⁾

65) 張介賓: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697, 1954 巢氏曰小兒初生肌膚未實宜用舊絮蓄其背不可太煖更宜數見風日則血氣剛強肌肉緻密若藏於重帷密室或厚衣過煖則筋骨軟脆不任風寒多易致病 衣服當隨寒熱加減 但令背煖爲佳亦勿令出汗 恐表虛風邪易傷乳哺亦不宜過飽 陳氏所謂忍三分寒喫七分飽頻探肚少洗澡要肚煖頭涼心胸涼皆至論也 又須令乳母預慎六淫七情厚味炙膊則乳汁清寧兒不致疾否則陰陽偏勝血氣沸騰乳汁敗壞必生諸病 若屢用藥餌則臟腑陰損 多變敗證可不慎歟 大抵保嬰之法未病則調和乳母 既病則審治嬰兒亦

東醫寶鑑 小兒門의 小兒保護法에서도 “어린이의 피부는 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껍게 입히고 덥게 하면 피부와 혈액은 손상 받아 헌데가 나기 쉬우며, 땀이 지나치게 흘러 땀구멍이 닫히지 않기에 풍사가 들어와 감기에 걸리기 쉽다. 만일 일기가 따뜻하면 안고 밖에 나가서 자주 바람과 햇빛을 쬐어 주면 튼튼해져서 바람과 추위를 잘 견디어 내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어른들이 아이를 밤낮 품안에 품고 땅을 밟을세라 하면 근골이 연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것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못된다” 라고 하였는데,⁶⁶⁾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적 인자들인 즉 물, 공기, 햇빛 등을 이용하여 적극 단련함으로써 젖먹이의 감기와 구루병을 예방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였고⁶⁷⁾,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幼年이 七八歲以前은 아직 聞見이 未及한 때인바 이때는 아직 年歲가 未及하여서 好聞見 能敬愛之心을 살릴 수 없으므로 喜怒哀樂이 膠着하여서 病이 되기 쉬운 즉 이때에는 어머니가 保護해야 마땅하다고 하였고⁶⁸⁾, 이는 부모와 형제의 도움

이 幼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를 기르는 열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등을 덥게 할 것, 둘째는 배를 덥게 할 것, 셋째는 발을 덥게 할 것, 넷째는 머리를 시원하게 할 것, 다섯째는 가슴을 시원하게 할 것, 여섯째는 피상한 물건을 보이지 말 것, 일곱째는 脾胃를 따뜻하게 할 것, 여덟째는 울음을 멈추기 전에는 젖을 먹이지 말 것, 아홉째는 朱砂와 경분을 먹이지 말 것, 열 번째는 목욕을 자주 시키지 말아야 한다⁶⁹⁾고하였고, 또는 밥을 줄 때도 十分에서 三分을 모자라게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울 때에도 十分에서 三分을 춥게 입히고 재우라는 교훈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뎌를 덜하려면 마음의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요, 그래서 서푼얇이란 말이 생겨 뉘엄직하여, 충족보다 모자란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⁷⁰⁾

우리 先祖들이 小兒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특히 栗谷先生은 家門의 子女들을 위하여 小兒須知訓에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는 것, 부모가 명령하신 것을 곧 시행하지 않는 것, 형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것, 음식을 가지고 다투며 서로 사양하지 않는 것, 다른 아이를 마구 건드려 서로 싸우는 것,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번번이 원망하거나 성내는 것, 손을 단정히 마주잡지 않고, 팔을 휘젓거나 비스듬히 기대는 것, 걸음을 경솔하게 걸으며, 땀박질하고 뛰어 넘고 하는 것,

必兼治其母爲善

66) 許浚：東醫寶鑑，서울，남산당，pp. 632-633, 1976 凡嬰兒肌膚未實若厚衣 過暖則傷皮膚 損血脈發瘡瘍 汗出腠理 不開風邪易入若天氣和暖抱之使見風日則氣血堅剛可耐 風寒不致疾病令人懷抱小兒不着地氣致令筋骨緩弱疾病易生 非愛護之道

67) 한상모의 공저：동의학 개론，서울，麗江出版社，p. 47, 1991

68) 韓東錫：東醫壽世保元，서울，誠理會出版社，p. 336, 年度未詳

幼年七八歲前 聞見未及而 喜怒哀樂膠着則成病也 慈母宜保護之也 少年二十四五歲前 勇猛未及而 喜怒哀樂 膠着則成病也 智父能兄宜保護之也 壯年三十八九歲前則 賢弟良朋 可以助之也 老年

五十六七歲前則 孝子孝孫 可以扶之也.

69) 이경화：광제비급，서울，여강출판사，p. 293, 1992

70) 이규태：돈의 韓國學，서울，기린원，p. 212, 1991.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하기를 좋아하며 말과 웃음소리가 떠들썩한 것, 유익하지 않고 상과 되지 않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게으름을 피우며 독서하지 않는 것, 독서하는 시간에서로 쳐다보며 잠담하는 것, 방심하고 혼매하여 낮에도 앉아서 졸고 있는 것, 단점을 감추고 잘못을 숨기며 언어가 성실하지 않은 것, 한가한 사람과 마주 앉아 잠담이나 하며 공부는 내 팽개치기를 좋아하는 것, 초서로 글씨를 어지럽게 써서 종이 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로 죄가 무거운 경우에 한번 범하면 벌을 논하고, 가벼울 경우는 세번 범하면 벌을 논한다고 하였다.⁷¹⁾ 小兒에 대한 심적인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愛情과 認定과 協力的인 태도를 포함하여, 自身을 가지도록 하고,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케 하고, 욕하거나 창피스러움을 주지 않도록 하며, 輕蔑이나 嫌惡感을 주지 않도록 하며, 건설적인 批評을 해 주고, 愛情을 나타내며, 信賴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자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린이에게도 感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⁷²⁾

유아의 精神健康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乳兒期의 발달적 특성을 우선은 제일 먼저 이해하는 일이고, 다음은 심신의 관련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현저하기 때문에 신체의 건강 유지와 그 증강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체가 건강하면 가족의 보살핌도 훨씬 수월해지며 자신도 스스로 버릇들이기가 쉬워지

며, 過保護나 溺愛도 身體의 不健康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데,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잘 뛰어 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놀이는 乳兒에 있어서 심신의 육구를 충족시켜 주는 最良의 방법인 것으로, 더욱이 異常緊張을 해소하고 육구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놀이의 크나 큰 효과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다음에는 情緒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인데, 건전하고 풍부한 정서는 柔軟性 있는 適應力을 習得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기초조건으로, 놀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풍부한 인간관계나 情緒教育을 통하여 건전하고 풍부한 정서를 발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⁷³⁾ 道德的基準의 獲得은 이른바 良心發達을 뜻하며, 그리고 어린이가 도덕적 기준을 획득하고 금지의 학습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식사 때의 버릇, 排泄의 訓練이나 攻擊的 行動의 사회화 등을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은 양심의 발달과 형성을 이루기 시작한다. 옳은 行爲와 그릇된 行爲라는 基準과 判斷은 人爲的인 것이며 어린이에 있어서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⁷⁴⁾

4. 부모가 小兒 精神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考察.

景岳全書의 小兒治法大法에서는 小兒의 병은 원래 살피기가 쉽지 않으나 병의 病源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바가 있는 까닭으로 증상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부

71) 栗谷: 國譯 栗谷全書(IV), 서울, 朝銀文化社, p. 341, 1994.

72)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73, 1985

73)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77, 1985

74)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107, 1985

모 선천의 氣를 살펴야 하는데 母氣는 더욱 절실하며, 선천이 다 盛하여도 부모가 방탕하거나 또는 기르는데 마땅한 바를 잃으면, 病이 百端으로 변해 생겨서 비록 강하여도 요절하게 된다고 하여,⁷⁵⁾ 부모와 子女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先天氣運과 부모 生活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李⁷⁶⁾는 東醫兒科 專門書籍에는 年齡別 成長段階別로 유인이 될 수 있는 문제와 母親과의 心因的 關係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였지만, 모친과의 구체적인 심인성의 상관성은 없었으나 부모의 중요성은 여러 곳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부모의 중요성은 현재에도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 동양의 유교적인 측면에서 가정과 부모에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유교의 근본 정신은 공자가 말한 바와 같이 仁이고, 仁의 근본은 孝悌 卽 家族 關係 다시 말해서 부모형제 關係를 바로 세워 부모형제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고⁷⁷⁾, 정신과 의사는 어린이를 진찰할 때는 가족, 특히 부모와의 關係를 진단하고, 결혼한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배우자와의 關係를 진단한다고 하였으며⁷⁸⁾, 小兒의 精神問題의 발생은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며, 부모가 채우지 못했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았다.⁷⁹⁾ 사람 마음 속에는 많은 대립된 원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父性과 母性의 原理 對立은 매우 중요하며, 母性의 原理는 조건 나쁘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감싸는 기능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母性原理 앞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성을 가지며, 내 자식인 이상 좋건 싫건 간에 모든 자질이 평등하게 포용됨으로써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은 관계가 없는 반면에 母性原理는 아이들이 제멋대로 그 포용의 한계, 곧 슬하에서 떠나가는 것을 거부하는데서, 모자一體의 근본 원리 파괴를 허락지 않기에 응석받이 과보호가 생긴다. 父性 원리는, 절단 곧 끊는 기능으로 나타나며, 主體와 客體, 善과 惡, 上과 下를 母性原理와는 달리 분류하고 아이들의 능력이나 개성에 따라 類別하고, 이 세상에는 민족이나 문화권에 따라 어떤 원리가 우세하고 잠재되고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감싸는 모성원리가 압도적이고 끊는 부성원리가 잠재돼 있는 전형적인 사회인 것으로, 정말 어린이를 위한 길은 옛 우리 모계로 전승된 아양병의 슬기를 부활시킴으로써 지성적으로 母性原理를 약화시키는 한편, 父性原理를 강화시켜 두 원리 사이의 역할에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이라고 말하여⁸⁰⁾, 父性과 母

75) 張介賓：景岳全書(下)，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 701, 1954 母氣者雖父母之氣俱有所稟但母氣之應在近 父氣之應在遠 或以一強一弱而偏得一人之氣者是皆不可不察至若稍長而縱口縱欲或調攝失宜而自爲病者—— 先天俱盛而或父母多慾或撫養失宜則病變百端 雖強亦夭

76) 李宗宇 金德坤 丁奎萬：小兒心身症에 관한 文獻의 考察，大韓小兒科學會誌 vol. 6, N 1, pp. 60-61 1992.

77) 이동식：현대인과 스트레스，서울，한강수，p. 163, 1991

78) 이동식：현대인과 스트레스，서울，한강수，p. 184, 1991

79) 이동식：현대인과 스트레스，서울，한강수，p. 196, 1991

80) 이규태：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서울，동아

性的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문제아는 夫婦가 처음 만났을 때 관계가 잘못 된 것이 十年 二十年년 또는 數十年 後에 나타나고 모든 가족관계도 夫婦관계 如何에 따라 좌우되는데,⁸¹⁾ 小兒의 근원적인 문제는 가정의 母體가 되는 夫婦관계에서 발생된다고 하였다. 小兒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노이로제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보면 그 原因이 가정이 가정 같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病的 종류가 무엇이든 연령이나 性別을 막론하고 모든 정신 不健康의 밑바닥에는 허전하다는 느낌이 자리를 잡고 있고, 모든 증세는 이 허전함을 일시적으로 메우는 가정이 가정답지 않으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바람이 나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하였다.⁸²⁾ 어려서 너무 애무를 받았거나 관심을 많이 받다가 못 받았을 때 항상 그런 관심을 받으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남의 관심을 사서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의지해서 남의 덕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⁸³⁾ 더욱이 부모가 어릴 때 커서까지 안아준다든가 만져주는 신체적 자극이나 접촉이 지나친 경우 커서 자살하는 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⁸⁴⁾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과보호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출판사, p. 292, 1992

81) 이동식: 현대인과 스트레스, 서울, 한강수, p. 171, 1991

82) 이동식: 현대인과 스트레스, 서울, 한강수, p. 183, 1991

83)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73, 1989.

84)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p. 74, 1989.

유아기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양친관계, 형제관계, 또는 조부모 등의 인간관계는 유아의 인격형성에 대단히 강한 영향을 주는데, 가정 내에서의 맏아들이나 막내딸에 대한 지나친 偏愛나 또 祖母의 손자에 대한 溺愛나 過保護 등에서 오는 인격형성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반대로 兩親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어린이 또는 외동이나 막내 아이가 특히 문제시 되는 것도 역시 가정內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분위기가 그들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유아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젓 빨리는 방식이나 태도로부터 시작하여 애정을 주는 방법, 나타내는 방법, 버릇들이기, 육아법, 놀이나 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보는 눈 등이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⁸⁵⁾ 생후 일년 미만의 어린이에게 오개월 이상을 대인관계 특히 정서적 접촉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어, 청결, 정돈 등의 습관형성이 늦고 성격적으로 비뚤어지기 쉬우며, 정서적으로 내향성이고 주의집중이 곤란하며 놀이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며, 罪責感도 없고 거짓말과 盜癖이나 放浪傾向을 가지기 쉽고, 이러한 경향을 孤獨症候群이라고 하는데, 유아는 언어가 발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慾求不滿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신체적 표현을 나타내고 全身으로 반응을 나타내며,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食慾不振, 嘔吐 濕疹, 머리 흔들기, 머리 부딪치기, 상체를 앞뒤로 흔들기, 다리를 꼬고 흔들어대는 따위의 運動常

85)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65, 1985

同症이나 손 또는 손가락의 常同症, 夜尿, 손가락 빨기, 性器만지기 등의 여러 가지 이상상태를 보여진다고 하였다.⁸⁶⁾ 유아 관찰에 의하면,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한 욕구 및 皮膚와 粘膜皮膚에 의 감각 자극 욕구가 출생 시부터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충족의 결여는 인격발달의 억제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고, 갑작스런 이유나 지나친 배변훈련은 후기에 감정 및 인격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부모의 태도를 시사하는데, 三歲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인격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다른 요인들은 부모의 신경증, 정신증, 혹은 정신쇠약, 반사회성 혹은 공격적 경향성 등으로 아동은 心理的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부모의 정서적 건강과 가족집단내 복합적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의 잘못된 부모 아동 관계는 부모 자신의 인격구조, 부모의 정서적 葛藤, 偏見, 과거 경험들과 관련되는데, 小兒가 당면하게 되는 영향을 이해하자면 부모가 小兒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갈등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방해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어떤 갈등이 부모와 그들 부모사이에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자신의 아이와 관계 맺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정반응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행동이, 아동 행동의 원인이기 보다 결과이기도 하다.⁸⁷⁾ 영 유아기의 성격 형

성은 아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영향은 태아기부터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탄생 후 가장 크게 영향은 받아, 유아가 心的 외상이 될 수 있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일생에 걸쳐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되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小兒의 性格은 애정 어린 모자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는 자기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하여 양육함으로써 할지라도 부모를 매개로 해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⁸⁾ 가정이 小兒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는 가정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 더욱이 그 인간관계는 부모 자녀 형제 관계라는 이해를 초월한 애정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린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가정이 生活의 中心이며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⁹⁾ 小兒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해서 모방함으로써 많은 것을 학습해 가는데,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小兒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기준을 자기 속에 흡수하고 자기 속에 재생하려는 동일시가 쌓여가고, 부모란 자녀에게 있어서 행동의 모델이 되고, 小兒는 부모를 모방하거나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여러

86)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67, 1985

87) 이근후외: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 626, 1988

88)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15, 1984

89)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16, 1984

가지 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小兒는 동기 간에도 경쟁을 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학습하면서 아이들끼리 하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형제의 수, 출생순위, 동기의 性的構成등도 小兒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⁹⁰⁾

近者 미국에서 가족치료의 연구 결과는 유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에서 파생되고, 즉 夫婦有別, 兄弟間의 序列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¹⁾

結 論

소아 정신신경과 질환과 소아심리에 대하여 동서의학적 문헌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小兒의 질환의 원인의 대부분은 부모로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심리에 의한 질환은 약물에 의한 것보다는 부모나 주위의 환경 적인 문제까지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민간에 전해오는 양방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小兒心理治療法의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小兒心理治療法은 한의학 서적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아우타는 것을 尪病이나 繼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

며, 小兒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小兒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심리적인 면이 예방이나 섭생의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간접적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기존 서적에서 심리적인 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동양 철학적인 접근에서 심리 치료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參 考 文 獻

1. 小兒의 질환의 원인의 대부분은 부모로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심리에 의한 질환은 약물에 의한 것보다는 부모나 주위의 환경 적인 문제까지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민간에 전해오는 양방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小兒心理治療法의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小兒心理治療法은 한의학 서적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아우타는 것을 尪病이나 繼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
4.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족문화사, p. 996, 1991.
5. 李濟馬著, 朴奭彥譯: 東武 格致叢, 서울, 태양사, p. 374, 1985
6. 柳岸津: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p. 1, 1985
7. 김중대: 최신정신위생, 서울, 수문사, p. 64, 1985
8. 이규태: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서울, 서울, 동아출판사, p. 184, 1992
9. 金泰坤: 民間醫療의 實態와 原理-信仰治療를 中心으로-, 서울, 漢陽大學校 精神健康研究所, 第1 輯, p. 51, 1983.
- 10)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18, 1984
- 11) 崔明仁: 相談의 理論과 實際,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 418, 1993
12. 이근후의: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한나의학사, p. 643, 1988
13. 이동식: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

- 강수, p. 104, 1989.
- 9) 이경화: 광제비급, 서울, 여강출판사, p. 293, 1992
 - 10) 黃度淵: 醫宗損益, 서울, 麗江出版社, p. 352, 1993
 - 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향약집성방4, 평양, 일월서각, p. 275, 1993
 - 12) 金在恩: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p. 305, 1984
 - 13) 이명성: 정신분석 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p. 98, 1987
 - 14) 金幸子: 新橋兒童發達學, 서울, 修學社, p. 107, 1990
 -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pp. 632-633, 1976.
 - 16) 이규태: 돈의 韓國學, 서울, 기린원, p. 212, 1991.
 - 17) 栗谷: 國譯 栗谷全書(IV), 서울, 朝銀文化社, p. 341, 1994.
 - 18) 한상모의 공저: 동의학 개론, 서울, 麗江出版社, p. 47, 1991
 - 19) 韓東錫: 東醫壽世保元, 서울, 誠理會出版社, p. 336, 1972.
 - 20) 崔明仁: 相談의 理論과 實際,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 418, 1993
 - 21)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第十冊, 兒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4, 1963.
 - 22) 李浚川: 情志醫學, 中醫古籍出版社, p 281, 1992.
 - 23) 王新華: 中醫曆代醫論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816, 1980.
 - 24) 張介賓: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701, 1
 - 25) 廣瀨 滋之: 醫林, 서울, 醫林社, 第166號, pp. 39-45, 1966
 - 26) 李宗宇 金德坤 丁奎萬: 小兒心身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小兒科學會誌, vol 6 N.1, p. 55, 1992